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 업무 효율성 강화

강동구, 직원들 업무 부담 완화 보고서 작성·정보공개처리 안내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구정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범용 AI 서비스와 특화 챗봇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는 강동구가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GPT-5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합 플랫폼이다.

특히, 이 서비스에는 구 스마트도시과 담당 직원들이 오픈 소스 모델과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 등을 활용해 강동구 행정업무에 맞도록 직접 개발한 업무 특화 챗봇이 도입됐다.

현재 도입된 특화 챗봇은 핵심 내용을 입력하면 양식에 맞춰 초안을 작성하는 '방침서 작성 봇', '주간 업무 작성 봇', '보도자료 작성 봇'을 비롯해, 구와 타 기관의 감사 사례를 안내해 재발을 방지하는 '감사 사례 봇',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처리 안내 봇' 등 총 다섯 가지로, 특정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생성형 AI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직원들이 직접 기술을 탐구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덜어주고, 그 역량을 구민의 삶을 바꾸는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시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27일 마포대교~한강대교 '세계불꽃축제' 區, 130명 인력 배치 7개 구역 안전관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27일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축제 당일 인파 흐름을 분석한 결과, 새빛문화숲, 365구민센터, 밤섬공원, 현석마을마당, 마포어린이공원, 헨켈타워, 마포역 등 7개 구역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구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새빛문화숲의 경우 같은 날 '하늘길 페스타'가 열려, 지역 내 혼잡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구는 지난 8일과 15일, 마포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전 안전점검 회의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관리구역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인파 통제, 의료 인력 및 구급차 배치, 교통대책 등 세부 계획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오경희 부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직접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빛문화숲, 마포역, 밤섬공원, 헨켈타워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하며, 시설 안전상태와 인파 동선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 개선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세밀히 살폈다.

또한 구는 총 130여명의 안전인력을 배치해 취약지역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포경찰서와 협력해 인파 통제와 분산, 행사 종료 후 순차 해산 유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포구 보건소는 구급차량과 의료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현장업무 안전 실천 서약식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만전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현장업무 안전 실천 서약식'을 열고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약식은 지난 18일 청소 용역업체 종사자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사업현장을 조성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는 청소, 공원녹지, 도로, 하수, 공공시설 등 구의 현장업무를 처리하는 용역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 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서약서에 서명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서약서에는 ▲강서구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안전 최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사업장 조성 ▲현장 안전수칙 준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직원 안전교육 지속 실시 등 안전보건의무이행을 위한 실천 항목이 담겼다.

서약식에 이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도 진행됐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진교훈 구청장(정면 가운데)이 서약식에서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등포구도 인파 밀집땐 재난문자 발송

여의도 전역 불법 노점 정비 쓰레기 수거·도로 물청소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종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다. 올해는 한화그룹과 SBS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며,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오후 1시~9시30분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 본격적인 불꽃쇼가 시작되며,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3개팀이 참가한다.

구는 예년보다 더 철저하게 안전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사장을 구역별로 나눠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행사장 밖 인파 밀집 예상 구간 3곳(선유도공원, 당산나들목, 샛강문화다리)에는 공무원, 경찰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과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 유관기관과 신속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인파 밀집 상황이 감지되면 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여의도 전역에서 불법 노점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 차량, 간이 쓰레기통, 임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해 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축제 종료 후에도 쓰레기 수거와 도로 물청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유지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송파구, 대한민국 국토대전서 국토부장관상·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 '2관왕'

가락시장·석촌호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호평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등극했다.

올해 17년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내 최고 권위의 국토 도시 분야 평가 대전으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24점의 수상작이 낙점됐다. 이번 대회에서 송파구는 첫 참가에도 불구하고 장관상, 학회장상 훈격의 2개상을 나란히 석권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공공디자인 부문에서 ▲가락시장 정수탑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가로와 광장 부문에서는 ▲'문화예술의 성지' 석촌호수가 각각 선정됐다. 두 수상작은 송파구가 민선 8기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를 목표로 역점을 두고 전개한 사업들이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상에 빛나는 ▲가락시장 정수탑 프로젝트는 20년간 기능을 잃었던 폐 정수탑을 초대형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서울시와 송파구,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손잡고 2024년 조성했다. 세계적 작가 네드 칸(Ned Kahn)의 조각품에 구가 모집한 시민 100여명이 만든 레진아트로 의미를 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구는 송파의 심장 석촌호수를 주제로 ▲'문화예술의 성지' 석촌호수를 출품해 한국도시설계학회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수변 산책로를 따라 미디어아트, 전시, 공연 등이 가능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해 가로공간의 질적 향상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버들개문화공원·한강로 환경 정비 용산구 한강로동주민센터

용산구(구청장 박희영) 한강로동주민센터는 최근 버들개문화공원과 한강로동 일대에서 '지역기업 연계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내 기업과 주민, 직능단체가 함께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비에는 아모레퍼시픽, 강남용역, 용우상사 등 지역기업 임직원들과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골목청결지킴이 등 총 101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권역별로 나뉘어 ▲이면도로 정비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등을 펼쳤으며, 약 300kg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청량리역 일대 휴식처 조성 시동 동대문구, 26일부터 문화 행사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청량리역 일대를 '머무르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는 이를 통해 청량리역 광장을 구민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넓은 휴식처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10월2일 7일간,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청량리역 3층 공개 공지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플리마켓에서는 의류, 주방·생활용품, 잡화 등 개성 있는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주민들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장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 27일 오후 3시~5시30분 서울거리아티스트 협동조합 소속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구 상징 캐릭터 '디디미'와 서울시 상징 캐릭터 '해치'를 형상화한 아트월룬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그간 청량리역은 단순히 지나치는 역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가 연결되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금천구, 올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 '우수기관'에 선정

3년 연속 행안부 장관 표창 받아 성과보상 개선·확대등 높은 점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은 전국 지자체 243개의 적극행정 이행력을 점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형식적 지표보다는 실질적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시·도, 시, 군, 구 부문별 최종 7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적극행정 평가에서 3회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성과보상 체계 개선 및 확대 강화 ▲다양하며 참신한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확산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절차를 실무관리자 평가, 주민·직원·GC적극행정단 투표, 위원회 심의로 단계화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선발 대상을 지방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2023년 이후 매년 성과보상 체계를 보완·확대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접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16건에서 21건으로 31% 증가했고, 우수공무원 선발도 7명에서 11명으로 57% 늘었다.

홍보 분야에서는 보도자료,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우수사례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

아울러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는 '현장 중심 홍보'도 병행해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과 공유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동작구, 25일 추석 맞아 직거래장터 개장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주민들에게 질 좋은 농·축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터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오후 6시 구청 신청사 정문 앞 광장에서 열린다. ▲충북 제천 ▲충남 예산 ▲경기 김포 ▲경북 문경 ▲전남 순천·장흥 ▲인천 강화 ▲강원 횡성 등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시·군에서 10개 업체가 참여한다. 사과·포도·배, 전통 장류, 김치와 건어물, 오미자 가공품, 곱창김, 한우 등 지역별 대표 먹거리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이날 현장을 찾은 선착순 200명에게는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박스 단위로 구매한 상품은 당일 무료 배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칼갈이와 우산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가 운영되고, 명절 분위기를 더할 풍물놀이 공연도 펼쳐진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도봉구도 24·25일 농·축·수산물 판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오는 24~25일 이틀간 도봉구청 전면광장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우호교류 도시인 원주시, 홍천군, 부안군, 연천군을 비롯한 총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한다.

판매 품목은 ▲한우 ▲사과 ▲포도 ▲곶감 ▲유정란 ▲참기름 ▲굴비 ▲잣 ▲표고버섯 ▲젓갈류 등으로 구성됐다.

이 기간 도봉구 소상공인회, 도봉구 양말제조연합회, 사회적경제기업 등 도봉구 지역 업체들도 참여해 ▲구기자 ▲도라지청 ▲양말 등을 선보인다.

판매 물품들은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되며, 일부 품목은 오후 2시, 4시에 깜짝 할인도 진행한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양천구, 27일 '락 페스티벌'… 인기 아티스트 참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 대표 음악축제 '양천 락(樂) 페스티벌'이 역대급 라인업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신월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락 발라드의 대표 아이콘 김종서와 독보적인 가창력과 폭발적인 성량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소찬휘를 비롯해 인기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하며 올가을 가장 핫한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눠 총 8팀의 뮤지션이 무대를 채운다.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관객 모두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1부에는 전통 거문고와 밴드 사운드를 융합한 '카디', 뉴트로 감성의 '저지브라더', 한국 모던 록을 대표하는 '브로콘 발렌타인', 헤비메탈의 전설 '크래쉬'가 무대에 올라 젊은 감성의 에너지를 전한다.

2부에는 '소찬휘', '김종서', '크랙샷'과 함께 튀르키예 대표 밴드 'Pitch Black Process'가 튀르키예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메탈사운드를 결합한 이색 무대를 선보인다.

관람은 별도의 예매 없이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며, 안전을 위해 행사장 최대 입장인원은 4000명으로 제한된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청렴실천 서약식

중랑구가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73명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서약식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서약식에 참석한 류경기 구청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중랑구, 망우문화마당 조성 기념 오늘 '가을 음악회'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망우역사문화공원내 '망우문화마당'을 조성하고, 23일 준공을 기념해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망우문화마당은 역사적 가치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망우역사문화공원 안에 조성된 공간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더욱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구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계절별 문화행사와 생활예술 공연, 주민 참여형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근현대 인물들의 묘역과 아름다운 산책로를 품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의 특성과 어우러져,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준공을 기념한 '가을 음악회'가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망우문화마당'에서 진행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서대문구, 내달 3·4일 區 국가유산 야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오는 10월3~4일 오후 5~10시 서대문독립공원 일대에서 '별의 서대'란 주제로 '2025 서대문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야경(夜景), 야시(夜史), 야료(夜路), 야설(夜說), 야시(夜市), 야화(夜畵), 야숙(夜宿), 야식(夜食) 등의 8야(夜)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와 문학이 어우러지는진 특별한 밤을 선사한다.

'야경(夜景)-별 하나에 국가유산'은 문화유산·문화시설 야간 개장 프로그램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참여한다.

두 시설 모두 행사 양일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야사(夜史)-별을 찾는 시간'은 서대문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야간 가이드 투어'로 독립과 자주를 주제로 독립문 일대에서 진행되며 참여자 전원에게 영천시장 상품권(5000원 상당)을 제공한다.

'야료(夜路)-별을 찾는 시간'은 재미와 교육 효과를 통시에 주는 스탬프 투어로 독립신문 완성 미션을 달성한 방문객에게 서대문 야행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